

'코로나19' 극복... 이들의 희생은 희망이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

■ 국립소록도병원 이슬아 간호사

"지매가 있는 한 확진자 할아버지가 같이 확진 판정을 받고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고싶다고 때때로 쓰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고흥군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이슬아(여·28) 간호사는 지난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구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다.

이 간호사는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병실에 입원하고 확진자는 병실을 나오지 못하는게 원칙이지만, 80이 넘는 할아버지가 산소마스크조차 벗어던지며 간곡히 요청해 오자 할머니와 복도에서 거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려오자 바로 대구에 힘을 보태고 싶었지만, 소록도에서 본인이 맡은 일이 있어 섣불리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국립소록도병원 간호과에서 즉시 대구에 자원봉사를 갈 간호사가 있냐는 말을 듣자마자 이 간호사는 바로 지원을 해 대구로 향했다. 그는 동산병원 확진자 병동에서 움직이기도 힘



들고 숨쉬기도 힘든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채를 입은채, 코로나로 확진자들의 혈압과 체온을 재며, 주사를 놓아주며 환자들의 땀을 닦았다. 확진자 병동에 다른 일반 직원들이 들어올수 없기에 식사 배식까지 도맡아 했다.

마치 전정터를 방불케하는 대구의 상황에서 그는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본인이 힘든 환자들이 '멀리서 오셔서 저희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더욱 힘이났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좀더 잘해드릴수 있는데 익숙해질만 해지니까 파견기간이 끝나서 아쉽다"면서 "누군가는 해야할이다. 내가 그 일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 광주의사회 당연히 나섰죠"

■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장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대구의 상황을 광주시의사회가 두고만 볼수 없었습니다."

서정성 남구의사회장은 지난 2월 28일 5명으로 구성된 달빛의료지원단을 이끌고 대구로 달려갔다. 당시 대구는 하루에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

서 원장은 "1984년 88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광주시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 매년 교류를 하고 있었다. 도시 자체가 코로나 공포에 휩싸여있는 데다 의료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광주시의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오전에는 대구성서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오후엔 대구동산병원으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환자들을 돌봤다. 서 원장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염병 재난상황과 레벨D 방호복 착용 상태에서의 의료는 쉽지 않았다. 착용 후 30분이 지나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땀으로 온몸이 적셔졌다"며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다.

서 원장은 "오전에 자신들의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오후엔 감염병진정병원에 와서 의료봉사를 펼치던 대구 의사들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난상황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생명 돌보는 건 의무"

■ 국립소록도병원 이지만 간호사

"신체건강한대만민국 청년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대구를 찾게 됐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간호사 이지만(37)씨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대구 동산병원 확진자 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봤다.

이 씨는 조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병원 물리치료사로 일하다 뒤늦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

이 씨는 "물리치료사도 보람된 직업이지만, 간호사의 역할 범위가 더 넓기에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간호사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

뒤늦게 간호사로서 일하게 된 만큼 남들보다 한발 더 뛰고 싶었다는 이 씨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대구에서는 하루에만 수 백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의료지원에 직접 지원했다.

이 씨는 "간호사이기에 앞서 또 한 사람이기에 코로나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컸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재난상황에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3년 중환자실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급환자 도움"

■ 조선대학교 병원 정정기 간호사

"13년 간 중환자실에서 일했습니다. 코로나 중증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구로 향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정정기(41) 간호사는 대구 의료지원의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대구동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돌봤다. 간호사 경력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만큼 정씨는 대구에서도 중환자실에 근무했다. 일반 병동과는 달리 위중한 환자들이 모인 중환자실의 하루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 씨는 "위중한 환자들이다 눈 돌릴 틈 없이 경과를 지켜보고 간호를 했다. 다행히 근무하는 동안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대구에 더 남아 의료봉사를 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속한 병원에도 위중한 환자들이 많이 그치지 못했다. 정 씨는 "의료봉사자 분들도 고생이 많았지만, 대구 간호사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했다"며 "간호사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도너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이라면 마땅히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하지만, 퇴원하는 환자들 보며 사명감 느껴"

■ 빛고를 전남대병원 이경옥 간호사

"불안하죠. 하지만 저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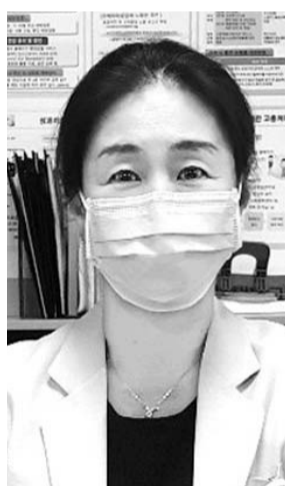
빛고를 전남대병원 이경옥(55)간호사는 지난 2월 29일부터 빛고를 전남대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간호사는 우리지역 환자뿐 아니라 병상 부족으로 애태우는 대구 확진자 환자들을 치료해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며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대구지역 확진자 30명이 모두 퇴원을 시켰고, 우리지역 환자들 22명도 완치판정을 받고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병원에 5명의 환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간호사는 레벨D 복장을 하고 고글과 마스크를 쓴채 병동에 들어서면, 곧바로 온몸이 땀에 젖고 숨쉬기가 곤란해 두통이 몰려 온다.

하지만 이 간호사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대구지역 환자들 보내오는 편지·과일·꽃다발·사진 등이 올때마다 두통은 씻는듯이 사라지고 오히려 힘이 난다고 했다.



또 광주에서도 고생한다고 힘을 내라고 매일같이 몰려오는 편지와 각종 선물이 이 간호사의 등을 토닥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퇴원해서나가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 오히려 뿌듯하고, 모든 시민들이 고마워 하는 직업을 가졌다는 생각에 더 힘난다고 했다.

이 간호사는 "고글과 마스크 때문에 환자와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해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들을 볼때마다 오히려 힘이 든다"면서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앞으로 또 일어날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감염전담병원이 우리지역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제 2020-02호]

부동산 매각공고

1. 매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288-20 외 2필지	전남 나주시 대호동 307-19 외 1필지
대지	양산동 288-20, 면적 7-7, 연면적 478-267 (총 3필지)	대호동 307-19, 대호동 310-18 (총 2필지)
지목	임야 및 전	도로
면적	총 145㎡	총 37㎡

2. 매각일정 및 최저 입찰금액 (단위: 원)

구분	입찰일시	개찰일시	최저입찰금액	
			광주 북구 연동동 외 3필지	전남 나주 대호동 외 2필지
1	2020.04.22(수)	10:00	2020.04.22(수)	17:00
2		15:00		15:00
3		15:00		15:00
4	2020.04.23(목)	10:00	2020.04.23(목)	17:00
5		15:00		15:00
6	2020.04.24(금)	10:00	2020.04.24(금)	17:00
7		15:00		15:00
8	2020.04.27(월)	10:00	2020.04.27(월)	17:00
9		15:00		15:00
10	2020.04.28(화)	10:00	2020.04.28(화)	17:00
11		15:00		15:00
12	2020.04.29(수)	10:00	2020.04.29(수)	17:00
		15:00		15:00

3. 매매계약 및 대금 납부 일정

구분	내 용	비 고
매매계약	계약금 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5일 이내 계약금 납부 및 매매계약 체결
잔금납부	잔금 90%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잔금 납부
기타사항	* 입찰가는 최저입찰금액 이상시 유효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4. 매각시 유의사항

- 1) 소재지별 토지 일괄매각이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하자가 없는 자에게 매각합니다.
- 2) 매도인은 입찰 참여자가 제출한 입찰서류 상의 매매금액, 자금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독자적인 판단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3) 매매계약체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그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체결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 4) 매도인은 매각 대상 재산을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의 상태로 매수인에게 매각하며, 매각 부동산의공부상 기재와 실제 상태의 일치 여부에 관하여 진술보장을 제공하거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매도인은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일정 및 내용 등을 사전 통보 없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 : (재)남도문화재단 법사무국 (062-463-0826)

재단법인 남도문화재단 이사장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2020년4월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금 130,000,000원 중 금3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총액을 금1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3,000주를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의 구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 및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월내에 본 회사에 구주권을 제출 및 이의를 제출하시거나 바와 이에 공고한다.

2020년 4월 20일
주식회사 영진빌류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42번길49(산용동)
대표이사 이기영

자본감자공고

본 회사는 2020년 4월 14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2,700,000,000원 중 금700,000,000원을 감자한 금2,000,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5,000원의 주식 140,000주를 회사와 주주들 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매입하여 임의 유상소각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400,000주(사본금 금2,000,000,000원)를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미소음료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민
전남 담양군 용문면 주월산로 735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0년 4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금 310,000,000원중 금 110,000,000원을 감소하여 20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 총수 31,000주중 11,000주를 주주 사상명의 동의를 얻어 무상소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본 회사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주식회사 에스지음건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19번길 29-2 4층(장덕동)
대표이사 서상영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4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0년 6월 21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절에 제외됩니다.

2020년 4월 20일
흥민개발주식회사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80-19
청산인 김점동

5월2일(토)
▲광주금강산악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섬 연도 소리도 댕박꽃 팔복산 트

래깅, 봉선동 롯데슈퍼앞 03: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3:20, 임주체육관 정문 03:30, 한국병원앞 03:40, 둔에회관 정문 육교앞 03: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